



경제통통



FOCUS

- 창조경제 창시자 '존 호킨스' 서울형 창조경제에 조언
- 서울시, 여의도에 금융기관 창업·이전시 보조금 지원

ZOOM IN

- “종로를 귀금속산업 메카로”, 서울주얼리지원센터 개관

HOT ISSUE

- 세계 패션거물 수지 멘키스, 동대문 찾아 서울패션산업 조언
- 서울시, 취업미끼 신종 대출사기 피해주의경보 발령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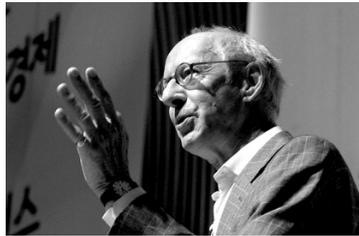
김기영 gykim@seoul.go.kr

FOCUS | 01

창조경제 창시자 ‘존 호킨스’ 서울형 창조경제에 조언

창조경제의 창시자이자 글로벌리더인 존 호킨스가 지난 7월 16일 서울을 방문해 「서울 창조경제 국제 컨퍼런스-지속가능한 혁신: 가치의 재창조」에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존 호킨스를 비롯해 美 오스틴시 시장을 지낸 리 러핑웰, 스타트업 위워크 공동창업자 매슈 삼파인 등 창조경제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서울의 자원과 강점을 활용한 서울형 창조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가치를 확립하고 사람 중심의 서울형 창조경제모델 구축에 관한 적용점을 찾았다.

존 호킨스,
변화하는 창조성과
혁신트렌드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밝혀



존 호킨스는 기존연설에서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창조성과 혁신트렌드가 인재, 사업모델은 물론, 도시와 국가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대응을 위한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각 세션에서는 선진 국가와

글로벌기업의 창조경제 추진, 글로벌 스타트업 양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공유했다.

리 러핑웰, 前오스틴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창조문화를 통해 미국 내 최우수 도시가 된 오스틴시의 성공비결을 밝혔고, 임경묵 CJ창조경제추진단 부단장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문화콘텐츠, 식품, 물류 등 새로운 산업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42개 지역에서 사용공간을 빌려주고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위워크의 공동창업자인 매슈 삼파인은 위워크의 발전방안과 커뮤니티의 힘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서울형 창조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과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이 창조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형 창조경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 시내에 창조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창의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창조경제메카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여의도에 금융기관 창업·이전시 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국내외 금융기관 여의도에 신규 창업시 최대 25억원 및 고용·교육훈련 자금 지원

30일에 공포된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의도에 신규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가운데 10%를 지원하여 창업과 사업장 이전시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한도는 10억원 이내다.

거래소나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정책 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자금의 25%, 기관당 25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신규고용 및 금융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 원 이내(1인당 최대 3백만 원), 기관당 2억 원까지 지원한다. 교육훈련자금은 기관당 6천만 원 이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금융중심지(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신규법인)과 외국계 금융기관 중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여의도로 이전·신설하는 경우에 한하며,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핀테크 관련 전자금융업체,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등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요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금융산업 발전여건을 조성한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로 보조금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와 계획을 빠짐없이 요구하는 동시에 환수사유 및 절차를 명시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융중심지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금융관련 지원이 전혀 없어 아시아의 경쟁도시 대비 불리한 여건이 었지만,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입지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ZOOM IN | 01

“종로를 귀금속산업 메카로”, 서울주얼리지원센터 개관



서울의 미래를 이끌 도심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주얼리산업을 활성화하고 종로3~5가 일대를 주얼리산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종로구 권농동에 ‘서울주얼리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주얼리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의 첫번째 역할은 서울의 주얼리산업을 소비자

에게 알리고 국산 주얼리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해 비즈니스로 연계하는 것이다.

먼저 시민홍보를 위해 센터와 인접한 종로 3가역을 ‘주얼리테마역’으로 조성하고 주얼리거리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

둘째, 고가의 귀금속, 보석관련 첨단장비를 구비해 귀금속 감정소 및 업체 학교·연구기관의 보석·다이아몬드 감정 업무를 지원한다.

셋째, 주얼리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컨설팅서비스를 지원하며 취업·창업 컨설팅과 온라인 취업박람회도 개최한다.

넷째, 센터 1층에 금거래시장(금인출센터)을 유치해, 종로지역 귀금속 업체의 금수급 편의 및 양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주얼리산업을
고부가가치 도심형
제조업으로,
종로일대는 창조적
산업클러스터로**

서울시는 이번 센터 개관을 계기로 주얼리산업을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도심형 제조업으로 재탄생시키고, 더불어 종로일대를 서울경제에 기여하는 창조적 산업클러스터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까지 주얼리지원센터 제2관을 우리전통가옥인 한옥형태로 개관해 이곳을 주얼리전시관 및 체험관, 공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 패션거물 수지 멘키스, 동대문 방문 및 서울패션산업 조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저널리스트 수지 멘키스(Suzy Menkes)가 박원순 시장을 만나 동북아 패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의 패션 산업 현장 곳곳을 방문했다.

인터내셔널 보그 에디터인 수지 멘키스는 전 세계 19개국 보그 웹사이트에 패션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로 그녀가 쓴 패션뉴스를 보는 사람만 3천 8백 여 만 명이다. 또 '컨데나스트 인터내셔널 럭셔리 컨퍼런스' 총 주관자로도 활동 중이다.

**내년 4월 서울서
개최되는 '컨데나스트
럭셔리 컨퍼런스'
성공개최를 위해 내한**

이날 첫 일정은 동대문 'DDP'. 수지 멘키스와 박시장은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6 컨데나스트 인터내셔널 럭셔리 컨퍼런스'의 주제와 콘셉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번째 일정은 '신진 디자이너의 인큐베이터'로 유명한 '두타'에 방문하였다. 수지 멘키스와 박시장은 젊은 디자이너들을 만나 자금 지원부터 유통·판로 개척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차세대 디자이너 육성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 방문지는 국내 최대 원단 및 의류부자재를 판매하는 '동대문 종합시장'이다.

박시장은 이곳에서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대문 일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및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판로 개척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시장은 이번 수지 멘키스와의 만남을 통해 서울시 패션디자인과 제조·판매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공유하고,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패션산업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얻어 패션도시 서울조성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또 더 나아가 관광객으로서 동대문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세계인을 매료시킬 서울의 관광핵심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HOT ISSUE | 02

서울시, 취업미끼 신종 대출사기 피해주의경보 발령

▶ 20대 취업준비생인 A씨는 강남의 한 대부업체의 상담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봤는데, 회사 대표가 취업 조건으로 투자금을 요구했다. 투자금이 없는 A씨에게 “3개월간의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제안했고 대출을 받는게 불안했으나 3개월 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구두약속과 투자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1100만원을 대출했고, 그 후 회사대표는 돈을 갖고 잠적했다.

서울시는 채용을 빌미로 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대출 알선 후 그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피해가 늘고 있다며 유사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취업 및 투자 빙자 대출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27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전형적인 취업 금융사기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자 모집 후 취업을 빙자해 신분증, 개인명의통장 등을 제출받아 명의도용 대출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상담원으로 취업을 제안, 투자금 명목의 대출 유도 후 ‘대출금은 3개월 내에 전액 상환하고 월급 외 배당금까지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직접 대출받은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변형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선 제3자가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고, 대출알선 및 투자유도 과정을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진행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진·녹취·메모 등의 기록을 남겨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02-3145-5114)에 신고하고, 대부업체 취업 해는 서울시 민생침해신고시스템‘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취약 계층별, 분야별 민생침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취업사기 동영상 제작해 교육 및 홍보에 이용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 공유를 통해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